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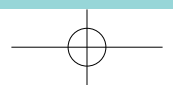
KIZ · M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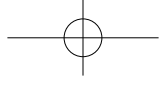


2017 KIZ · M CEO SUMMIT

KIZ
M
*
MAGAZINE







미래 사회와 교육 가르치기에서 기르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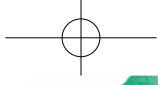
이성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역사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인류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내다본 20세기 통섭학자 페르낭 브로델(1902-1985)은 “나폴레옹 군대의 진군 속도는 줄리어스 시저 군대의 진군 속도와 같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두 군대는 거의 2,000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데도 그동안 인간의 이동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잘 지적한 말이다. 지난 16만 년의 기간 동안 인간의 이동속도는 5km에 머물러 있었다. 18세기에 획기적으로 시속 16km의 이동속도를 가능하게 해 준 마차의 시대가 열렸으나, 20세기에는 시속 29,000km에 이르는 우주 왕복선과 260,000km에 이르는 TAU 우주탐사선의 시대가 열렸다. 이 속도의 변화는 우리 인류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열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말은 이제 진부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빠른 변화는 교육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매년 200만 권 이상의 서적이 출판되어

나오고, 매년 200만 편 이상의 학술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때 정보가 귀해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넓게 아는 사람’ 즉 ‘박사’라 부르고 대우를 하였으나, 지금은 세계 모든 곳에 숨어 있는 지식을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찾는 세상이 되었다.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접근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를 창조적으로 응용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교육현장은 지난 수천 년 동안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변화가 없다.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미래 교육은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 그 패러다임을 요약하면 ‘가르치기에서 기르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은 그 목표가 시대별로 여러 번 변화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초기 교육에서는 무술과 육체단련을 강조하였다. 그 후 종교적 교육을 통해 신의 세계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만물의 이치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교육으로, 최근에는 최대한으로 과학적 지식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과학 위주의 교육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현재에는 정보의 공유, 자아의 확대, 자기완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산업사회에서 길러내고자 한 인제는 근면한 공장근로자였고,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역량을 보유한 박식한 근로자였으나, 스마트사회에서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춘 네트워크형 개방적 인재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근면성이 강조되고, 많은 양의 지식 축적을 목표로 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자 그대로 전근대적인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을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춘 네트워크형 개방적 인재로 제대로 길러낼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패러다임이 '가르치기'가 아니라 '기르기'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은 유대인의 교육법이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교육법은 기르기와 가르치기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약 2,000만 명이지만, 노벨상을 무려 200여 개를 받아 전체 수상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벨경제학상의 65%를 받은 대단한 민족이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아이비리그대학 입학생의 30% 역시 유대인이다. 한국은 인구가 8,000만 명으로 유대인보다 4배나 많지만, 학술 분야에서 단 하나의 노벨상도 받지 못했다. 아이비리그대학 입학생 중의 한국인 비율도 1%에 불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평균적인 지능지수는 95로 세계 40위권이나, 한국인의 평균적인 지능지수는 106으로 세계 2위에 올라있다. 뒤처지는 지능지수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유대인과 탁월한 두뇌로도 별다른 업적을 못 이룬 한국인은 큰 대조를 보인다.

유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데 적합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개별성, 창의성, 독자성이 늘 교육의 핵심이며, 개인의 재능을 계발하고, 토론과 실습으로 다양한 경험과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교육은 토론과 현장학습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시험 위주의 주입식 교육, 반복적인 강압학습으로 학점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때 알파벳을 꼴로 써놓은 서판을 혀로 핥으면서 "지식은 달콤하다"라고 말하게 하여 지적 호기심을 길러주고, '하브루타'라고 부르는 경쟁적 토론을 통해 타인의 의견에 논리적 반론을 퍼면서 "말 잘 듣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구호를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몸으로 익히게 한다. 새로운 창의성, 개인적인 독창성,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색다른 결론과 해결을 찾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길러주는 것이다. 반면, 무조건 많이 외우게 해 공부에 질리게 하고, "어디서 말대꾸야?" 같은 말로 지적 호기심의 싹을 자르는 우리의 교육은 안타깝다.

모든 아이는 독자적이고 독창적이며 어느 영역에서든지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은, "천재는 없다. 천재로 길러진 아이만 있을 뿐이다. 평범한 아이란 없다. 평범한 아이로 길러진 아이만 있을 뿐이다. 바보란 없다. 바보로 길러진 아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미래의 인재상,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춘 네트워크형 개방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식을 담는 그릇' 정도로만 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이 지닌 독창성과 창의성을 끌어내 그 능력을 펼치도록 도우며, 학생을 '만들어지고 있는 인재'로 보아야 한다. 즉 정보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저축형 교육'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불을 붙이는 '점화형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점화형 교육에서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신뢰를 보여 주고, 흥미를 느끼게 해 주고, 즐겁게 해 주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엘리트이자 품위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너그러운 예의 바름, 감정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게 보람된 일이면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